

광주 공공도서관, 시민들 소통 공간으로

혁신추진위, ‘문화도시, 도서관정책 재정립’ 6차 권고문 발표
지역간 역사 문화 공유·문화 예술 창작 등 특성화 확대 강화

광주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이 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는 지난 20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도시, 광주도서관정책 재정립’을 위한 6차 시정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추진위가 지난해 11월27일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스마트제조혁신,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등에 이어 6번째 발표한 시정혁신 권고다.

광주시 공공도서관은 23개소이며, 현재 47개소가 건립 중에 있다. 연간 이용자는 640만명으로 시민 1인당 연간 4.2회를 이

용하는 등 도서관은 광주시 공공시설 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대다수 도서관이 취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의 본래 기능인 ‘시민들이 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기능 재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21세기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주민친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광주시 도서관 정책 방향을 권고했다.

이번 혁신추진위 권고는 ‘문화도시, 광주 도서관정책 재정립’에 목표를 두고 ▲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21세기형 도서관 기능 정립 ▲ 시민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 시민들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혁신

공간이라는 3대 기본방향에 따라 9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추진위는 우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21세기형 도서관 기능 정립’을 위해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쉽게 이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 등을 포함한 중·단기 도서관 수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광주시에 요구했다.

또한 도서관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모바일디지털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자동창고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환경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스마트도서관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서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역의 지식 정보를 축적하는 공급자 측면에서 지역이 가진 지식정보의 총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물을 보유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

주·인권·화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되도록 지역 도서관이 지역의 교육·지식 공동체 속에서 교류·협력 플랫폼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이를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 창작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축구장 등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시설로 재구축, 주민들이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공도서관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혁신추진위는 시정혁신 제6차 권고문을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3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을 점검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

北 “초대형방사포 성공적 시험”…김정은, 무기개발 강조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의 개발 정형(상황)을 요해(파악)하고 시험사격 명령을 내렸으며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발사에 나선 이래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미사일급 방사포’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시험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대구경조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사포 발사 모습으로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된다.

종방사포’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여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

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北발사’에도 “우린 좋은 관계” 강조

북한이 24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북한이 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뢰를 깨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 영상전문매체 APTN의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답변에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자”면서 “김정은은 나에게 꽤 솔직(pretty straight)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김정은)는 미사일 테스트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나라가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한다. 여러분이 아마도 알고 있듯 우리도 며칠 전에 큰 테스트를 했다”며 북한의 이번 실험이 여러 나라가 하는 미사일 실험과 다를 바 없다는 뉘앙스로 거듭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전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편의시설 대폭 확충된다

389억 투입 내년 착수…환승시설·면세점 등 증·개축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무안국제공항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에 대합실, 환승시설, 면세점, 주차장, 수화물 처리벨트 및 관리동, 장비고의 증·개축 등을 위해 실시할 계중이며, 이들 공사에 389억원이 투입된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56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9%가 늘어난 규모다. 연말까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광주민간공항이 통합되면 3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금까지 전남도는 국제선 신규 노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광주·무안공항 통합 및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무안군, 항공사 등과 매월 1회 이상 이용객의 불편 해소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광주공항과의 통합 이전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사상 첫 이지스함 투입

제7기동전단·육군 특전사 참가…독도 수호 의지 반영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최정예로 꾸민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들이 25일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드러내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육해공 입체방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에 따르면,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독도방어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4000t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다. 2008년 12월 취역한 우리 해군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SPY-1D’ 레이더 기반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유도탄, 항공기 등의 공중 표적을 최대 1000여km 밖에서 탐지한다.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고 이 가운데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해군과 해경 합정은 세종

대왕함을 포함한 10여 척, 육·해·공 합동기는 공군의 F-15K를 포함해 10대가 참가했다. 이날 독도방어훈련을 위해 참가한 해병대원 등이 경복 포항공항에서 독도로 이동하기 위해 육군 대형수송 헬기 치누크(CH-47)에 탑승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투입된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배 정도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부터 시작된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는 독도방어훈련에는 통상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해왔다.

군 당국이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 등 해군의 최정예 전력과 육군 특전사 등을 투입한 데에는 최근 동해 등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는 평가다.

러시아, 중국 군용기들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행위는 근년 들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중러 군용기들이 동해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0억 투자

2분 모십니다!
(주)오천정매, 010-3605-5000

▶ 10억이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 골프연습장 공사 중단된 토지

▶ 공동소유 개발 및 매매

▶ 경기도 연천군 임야 등 4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제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公國
談家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971)	광주교육대학교(2071)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학문학원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95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공 경계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